

대한민국 식량 공급 · 식품 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재단 1차년도 연보

「 2010년 4월 - 2011년 2월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36-713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녹지)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www.foodsecurity.or.kr



##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02
· 연구재단 발족경위	03
· 임원 및 직원 명단(프로필)	06
· 1차년도 사업내용	09
- 이사회 개최	09
- 학술회의	10
- 연구사업	12
- 저술 출판사업	13
- 자료수집	13
· 1차년도 재무보고(2010년 12월 31일 현재)	15
· 2011년도 사업계획	16

## ::: 이사장 인사말 :::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계와 식품산업계의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한지 벌써 일 년이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완 교수님과 이현구 교수님 그리고 대선제분 박관희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재단 발기인 여러분의 성원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재단 발기인 대회 때에는 멀리 안성지역구에서 만사를 제치고 올라오셔서 축사를 해주신 김학용 의원님, 저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던 삼양식품 전중운 명예회장님,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 일을 후원하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힘으로 2010년 4월 27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생산과 공급을 위해 그 동안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정부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쌀의 자급을 비롯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의 서구화와 사료곡물 수요의 급증으로 곡물자급률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전체식량의 반 이상을 수입해 먹는 현실에서 농수산업을 위주로 하는 식량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구성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본 연구재단의 시작은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부각시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이 양축을 이루는 식량공급 체제를 정착시킴으로서 우리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학계와 식품산업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일에 공감하시고 후원금을 내어 주셔서 순수한 민간 연구단체로 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단은 열심히 국내외 관련 자료를 모아 웹사이트에 올리고 연구 과제를 도출하여 연구비를 제공하고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여론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시작하여 지구촌 식량위기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 국민 각자가 식량자급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 실천하게 하는 국민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단이 수행한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구상하면서 1차년도 연보를 펴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단은 더욱 열심히 이 나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안정적 식량공급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와 정책 개발, 그리고 국민 교육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 ::: 연구재단 발족 경위 :::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설립 취지문]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 생산 등으로 세계의 곡물수요가 생산량을 훨씬 초과하여 평균 재고량이 30%에서 15%이하로 바닥을 내고 있습니다. 2007-2008년에 경험한 곡물가격 상승은 현재의 곡물가격이 언제든지 2-3배로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 각처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식량파동과 난동을 겪었고 일부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식량대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풍지대로 식량의 부족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30%이하인 것을 걱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에 수출을 많이 해서 모자라는 식량을 사오면 되지 무슨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 식량사정 변화는 우리의 식량수급에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우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동물성식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사료곡물의 수요 증대로 세계 시장의 식량을 싹쓸이하는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돈이 있어도 사을 식량이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게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식량수출국들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가 늘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과 옥수수의 90%가 이미 GM작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대부분은 GM작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먹기를 꺼려합니다. 이제 돈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식량을 세계시장에서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식량자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0% 수준에서 3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칼로리 수요의 30%밖에 안 되는 미국중심의 식량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쌀이 남아도는 기현상을 10여년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백질 급원인 식용 콩만이라도 자급하자고 외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식량의 70%를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 쌀 이외의 거의 모든 곡물을 외국에서 사들여서 가공 유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식품산업이 식량 공급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이 양축을 이루는 식량정책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명한 것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 전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미약합니다.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70% 이상의 임야로 구성된 한반도에서 선진국 수준의 풍요한 식생활을 계속 영위하려면 식량의 완전 자급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최소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모자라는 식량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식품산업이 수입해 들여올 수 있는 능력과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유통, 식품안전, 국민영양 및 식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정책의 수립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공급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적 이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와 식품산업이 중심이 되어 민간 연구단체로서 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연구재단의 사업]

1. 한국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
3.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분야 정책 개발 연구
4. 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교류 협력
5. 식품안전 위해분석 전문가 교육 및 육성
6. 식량 외교통상 전문가 교육 및 육성
7. 기타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 [연구재단의 구성]

1. 본 연구재단은 독지가들의 출연금으로 설립하고 운영한다.
2. 재단의 이사는 설립 출연금을 기탁한 인사들로 구성한다.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용역연구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한다.
4.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정책 연구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인적구성을 목표로 한다.

2010년 3월 제안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철호  
(010-9347-9213, chlee@korea.ac.kr))

## [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창립 발기인 총회가 2010년 4월 27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철호 교수의 개회 인사와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김학용 의원,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대신하여 박현출 실장의 축사가 있은뒤 재단 정관을 채택하고, 재단 이사장으로 고려대학교 이철호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이사로 김진수 CJ제일제당 사장, 김 량 삼양사 사장, 박관희 대선제분 회장, 박성철 (주)대상 사장, 이상윤 (주)농심 부회장, 이선호 삼양식품 사장, 최병순 한국제분 사장이 선출되었다. 고문으로는 권태완 인제대 명예교수, 이현구 대통령과학기술특보, 전중운 삼양식품 명예회장, 김학용 국회 농수산식품위원이 추대되었다. 감사는 문현팔 과학기술한림원 식량안보과학특별위원회장과 황한준 고려대 교수가 피선되었다. 재단 사무국장은 박영식 고려대 연구교수가 임명되었다. 연구재단은 고려대 이철호 교수가 기부 출연한 1억원의 기본자산으로 시작하며 독지가들의 기부 후원금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 [발기인 명단]

이현구 대통령과학기술특보  
김학용 국회농수산위원  
박관희 (주)대선제분 사장  
이상윤 (주)농심 부사장  
김창민 (주)CJ제일제당 상무  
권태완 인제대 명예교수  
문현팔 한림원식량안보과학위원장  
경규항 ILSI Korea 회장  
황한준 고려대 교수  
김영태 법무사  
박영식 고려대 연구교수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전은숙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이선호 (주)삼양식품 사장  
김 량 (주)삼양사 사장  
김영민 (주)대상 상무  
김석동 공세계과학관건립추진위원장  
정 승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임재각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수  
박현진 고려대 교수  
홍현찬 서울셀렉션  
이철호 고려대 교수



::: 임원 및 직원 프로필 :::

[고문]

권태완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식품과학 박사  
KIST 식량과학연구소장, 부원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초대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콩세계과학관 건립추진위원장

이현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네소타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사장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삼양식품 대표이사 회장  
삼양축산 대표이사 회장  
삼양식품 명예회장

김학용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이사장]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 식품학 박사  
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

[이사]

김 량 삼양사 부회장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부사장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삼양사 부회장

김진수 CJ제일제당 전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농경제학 학사  
CJ 대표이사 사장  
CJ 부사장  
한국 온라인홈쇼핑협회 협회장  
CJ 홈쇼핑 대표이사

박관희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회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석사  
서울상공회의소 제20대 대의원선출  
경북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선제분 대표이사 회장

[감사]

문헌팔 북방농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UC Davis 유전학 박사  
농촌진흥청 차장  
아시아 태평양 육종 학회장  
한림원 식량안보과학특별위원장

황한준 고려대학교 교수



독일 Hohenheim대 식품공학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식약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재단사무국]

박영식 사무국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 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정책팀장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연구교수

박성철 대상(주) 대표이사 사장



오리건대학교대학원 경영학 박사  
삼성전자 경영혁신단 SCM그룹담당  
전무  
대상(주) 사장  
대상(주) 대표이사 사장

이선호 삼양식품(주)대표이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국민은행 명동지점장  
동신제약(주) 관리본부장  
삼양식품(주) 대표이사 부사장

이상윤 (주)농심 대표이사 부회장



서울대학교 학사  
(주)농심 대표이사 사장  
한국식품공업협회 비상근 부회장  
(주)농심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주)농심 대표이사 부회장

최병순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영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한국제분, 동아제분 이사  
동아제분 상무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김미경 사무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상계백병원 임상사진사

## [재단연구부]

## 이꽃임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석사  
영국 Sheffield 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생물/유전학 박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 연구원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시간강사

## 이숙중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  
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 이장은 박사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가톨릭대학교 식품학전공 이학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학박사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 ::: 1차년도 사업 내용 :::

「 2010. 4 ~ 2011. 3 」

## 1. 이사회 개최

## (1) 1차 정기이사회

· 일시 : 2010년 7월 13일



· 장소 : 밀레니엄힐튼호텔  
· 회의내용 : 신입이사 상견례, 재단 상반기 업무 보고,  
2010년 사업계획 심의, 2010년 운영예산 심의

## (2) 1차 이사 간담회

· 일시 : 2010년 10월 7일  
· 장소 : 조선히텔  
· 회의 내용 : 홈페이지 제작 및 재단 월간 소식지 발송 내용 관련 보고, 세미나 개최 보고, 연구사업(용역),  
정관개정 내용 알림, 후원금 모금내역 보고

## (3) 2차 이사 간담회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 장소 : 조선히텔  
· 회의 내용 : 경과 보고, 연구 과제 추진 계획, 후원금 모금내역, 이사장 FAO 고문관 업무내역

## (4) 3차 이사 간담회

· 일시 : 2011년 1월 4일  
· 장소 : 힐튼호텔

- 회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 알림, 재단 연구과제 공모,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 추진 계획, 이철호 이사장 FAO 한국측 전문가 파견 결과 보고서

## 2. 학술회의

### (1) 식품안전 관련용어 통일 및 순화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0년 7월 9일(금) 09: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주최 : 국회의원 김학용,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개최사 : 김학용 의원, 이철호 이사장
- 축사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발표자 : 식품안전 관련 용어 통일을 위한 검토 (정기혜 박사)  
방사선조사식품 용어 순화를 위한 제언 (변명우 교수)
- 토론자 : 이광호(식약청 연구부장), 홍무기(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부장)  
곽동경(한국식품조리과학회장), 김미리(한국식품관련연합회장)  
전향숙(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연구단), 신지영(고려대 국어국문과 교수)  
장영주(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승환(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자료집 300부 발간, 참석인원 180여명, 토론회 내용 국회방송에서 방영



### (2) 아태지역 식품 안전위해평가 기술 워크숍

- 일시 : 2010년 10월 5일(화) 09:30~18:00
- 장소 : 그랜드 힐튼호텔
- 주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의약안전평가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개최사 : 이철호 이사장, 김승희 식의약안전평가원장
- 발표자 : Steve McCutcheon(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장), 이효민(식의약안전평가원), Hajime Toyofuku(일본 공중보건연구원), 박경진(군산대 교수) Fenqin Li(중국 질병통제센터 식품영양안전연구소), 유명애(ILSI Korea)
- 토론자 : 박영호(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이광호(식의약안전평가원 부장), 방옥균(한국식품공업협회 부회장), 윤기선(경희대 교수), 이종경(한양여대 교수)
- 자료집 : 200부 발간, 참석자 120여명(동시통역)



### (3) 제1회 식량안보세미나-식품안전 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

- 일시 : 2010년 10월 22일(금) 13:30~19: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대회시설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개최사 : 이철호 이사장
- 발표자 : 식품안전 관련 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 (경규항 세종대 교수)  
MSG 불매운동이 국가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친 영향 (이장은 박사, 재단 연구원)
- 토론자 : 박태균(중앙일보 기자), 이효민(식의약안전평가원), 김용현(한국식품공업협회)  
김창민(CJ 식품안전센터장), 임번삼(KISTI 전문연구위원), 이주운(한국원자력연구원), 문은숙(식품안전정보센터장),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이근호(식품유료신문사장)
- 자료집 200부 출판, 발표 및 토론 내용 CD 제작, 참석자 130여명



### (4) 제2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량안보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0년 11월 29일(월) 13:30~17:30
- 장소 : aT센터 3층 중회의실
-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 개최사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축사 :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하영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김종훈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발표자 : 한국과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비교연구(이철호 이사장)
- 토론자 :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철(한국식품연구원), 박효근(서울대 명예교수), 송태복(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이기식(한국식품공업협회), 이주운(한국원자력연구원), 조은기(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한두봉(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황영현(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교수)
- 자료집 200부 출판, 발표 및 토론 내용 CD 제작, 참석자 150여명



### 3. 연구사업

#### (1) 한국과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비교 연구

- 연구자 : 이철호 재단 이사장
- 연구기간 : 2010년 5월 1일 - 2010년 11월 30일(7개월)
- 연구비 : 없음
- 연구성과 : 제2회 식량안보세미나 주제발표, 발표내용 CD제작

#### (2) MSG 불매운동이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 : 이장은 박사 (재단 연구원)
- 연구기간 : 2010년 6월 1일 - 2010년 12월 31일(7개월)
- 연구비 : 1,000만원
- 연구비 지원기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연구성과 : 제1회 식량안보세미나에서 발표, 발표내용 CD 제작, 결과물 학회지에 발표 예정

#### (3)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현황과 전망

- 연구책임자 : 박태균 박사(중안일보 기자)
- 공동연구자 : 황한준 교수(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 연구기간 : 2010년 10월 20일 - 2011년 4월 20일(6개월)
- 총연구비 : 2,000만원
- 연구비 지원기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연구성과 : 제 3회 식량안보세미나(2011. 3. 31)에서 발표 및 토론 예정, 결과물 학회지에 발표 예정

#### (4) 개도국 식품안전 비상상황 대응 능력제고 지원사업 (FAO, 한국측 전문가 파견)

- 연구책임자 : 이철호 이사장
- 연구보조원 : 이장은 박사, 김미경 간사
- 연구기간 : 2010년 11월 16일 - 2010년 12월 31일(1.5개월)
- 총연구비 : 3,200만원
- 연구비 지원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성과 : 로마주재 FAO Consultant로 활동, FAO-한국정부 공동사업 추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4. 저술 출판사업

#### (1) 자료집

- 1) 식품안전 관련용어 통일 및 순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18쪽) 300부 제작 배포
- 2) 아태지역 식품 안전위해평가 기술 워크샵 Proceeding (148쪽) 200부 제작 배포
- 3) 식품안전 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 자료집 (107쪽) 200부 제작 배포
- 4) 식량안보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92쪽) 200부 제작 배포

#### (2) 동영상 CD 제작

- 1)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이철호 이사장 강의)
- 2) 식품안전 관련 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 (정규항 세종대 교수 강의)
- 3) MSG 불매운동이 국가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친 영향 (이장은 박사 강의)
- 4) 한국과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비교연구 (이철호 이사장 강의)



#### (3)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 1) 매달 재단 주요업무 및 식량안보관련 소식들로 뉴스레터 발간, 홈페이지 게시.
- 2) 2010년 7월 1호를 시작으로 2011년 3월 현재 8호 발간.
- 3) 회원들께 이메일로 전송.

### 5. 자료수집

세계적인 식량공급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적시에 알리고 우선 실천 가능한 행동강령을 홍보하며 앞으로 전개될 종합적 식량안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 구축을 재단의 매우 중요한 연구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함으로서 식량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바람직한 정책제안이 나오도록 도우려고 한다.

이에 2011년 3월 현재 구축된 식량안보재단 홈페이지는 (1) 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 (2)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소개 (3) 식량안보와 관련이 있는 자료와 뉴스기사 (4) 재단에서 매달 발행하는 뉴스레터 (5) 식량자급실천을 위한 국민운동 홍보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식품업계, 해당 정부기



관, 언론, 여론 등을 수렴하여 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우리자손들이 이어받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foodsecurity.or.kr이며, 월 1회 재단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공지하고 있다.



## ::: 1차년도 재무보고 :::

「 2010. 4 ~ 2010. 12 」

수입			지출	
항목	내용	금액	항목	금액
후원금	대선제분	20,000,000	인건비	29,001,540
	이선호(삼양식품)	2,000,000	복리후생비	700,000
	호공회	21,817,000	회의비(세미나 등)	8,230,550
	전중윤(삼양식품)	5,000,000	연구용역비	13,000,000
	농심	20,000,000	활동비	80,000
	CJ제일제당	20,000,000	출장비	1,308,530
	한국제분	15,000,000	운영비	19,196,535
	대상	10,000,000	과제-여비	15,648,400
	그린피아기술	2,000,000	과제-수용비, 인건비	292,000
	기타(개인)	800,000		
	소계	116,617,000		
	출연금	이철호	100,000,000	
연구비	연구과제(위탁)	26,400,000	소계	87,457,555
기타		3,331,198	재단 적립금	30,000,000
<b>총계</b>		<b>246,348,198</b>	<b>총계</b>	<b>117,457,555</b>

수입	246,348,198
지출	87,457,555
재단적립금	130,000,000
이월금	28,890,643

## ::: 2011년도 사업계획 :::

### I.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전개

- 2010년 11월 29일 aT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식량안보세미나 “식량안보 정책 개발토론회”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2011년부터 민간운동으로 전개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공동대표
  - 장태평(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 황민영(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추진위원회 결성 : 2010년 12월~2011년 3월(사업을 위한 모금운동 병행)
  - 국민운동 실행 비디오 제작 및 책자 발간(2011년 1월~3월)
  - 국민운동 전진대회 : 2011년 3월30일, 각계대표 약 400명 참석 예정

### II. 연구사업 지원

#### 1)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현황과 전망

- 연구기간 : 2010년 10월 20일~2011년 4월 20일(6개월)
- 연구비 : 2,000만원(2010년도에 1,000만원 지급)

#### 2)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식품의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 연구책임자 : 노용철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노용철, 안태영, 박승남, 김필주, 백병학, 이광규, 이규환, 강문기, 양동철
- 연구기간 : 2011년 2월~2011년 10월 (9개월)
- 총연구비 : 2,000만원
- 연구비 지원기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연구성과 : 2010년 8월경에 식량안보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간발표와 토론 예정, 결과물 학회지에 발표 예정

#### 3)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 및 식품산업 대응전략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1년 6월~2012년 5월(12개월)
- 연구비 : 3,000만원
- 연구비 지원기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연구내용 : 개발 중

## III. 외부연구용역 수행

### 1) APEC 위해평가 훈련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철호 이사장
- 공동연구자 : 이꽃임 박사, 이정은 박사
- 연구기간 : 2011년 1월~2011년 11월(11개월)
- 총연구비 : 5,000만원
- 연구비 지원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청
- 연구성과 :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의 식품안전협력포럼(FSCF)에 참여하여 식품안전 위해평가에 관한 세계적인 정보 수집, 국내 훈련 자료 제공

### 2)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경제적 이득에 관한 연구

- 책임연구자 : 이철호 이사장
- 공동연구자 : 이숙중 박사, 이장은 박사
- 연구기간 : 2011년 2월~2011년 10월 (9개월)
- 총연구비 : 3,000만원
- 연구비 지원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 연구성과 : 조사기술(Irradiation)에 의한 식품의 저장 손실 방지에 대한 경제적 평가, 비용편익분석 모델에 의한 조사기술의 식량안보적 가치 산출

## IV. 식량안보포럼 및 세미나 개최

### 1) 제3회 식량안보포럼

- 주제 :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확대를 위한 토론회
- 일정 : 2011년 3월 31일 프레스센터
- 주요내용 :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 과제의 연구내용을 발표 하고 산업계, 학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2)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세미나

- 주제 : 서울국제 식품전과 병행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 후원으로 개최.
- 일정 : 2011년 4월 26일 오후 KINTEX
- 주요내용 : 세계 식량사정과 한국의현황 검토, 식량 공급을 위한 식품산업의 기능과 역할 토의

### 3) 제4회 식량안보포럼

- 주제 : 식품산업 폐기식품의 발생현황과 감축방안에 대한 토론회
- 일정 : 8월 중순 프레스센터 혹은 상공회의소 세미나 실

- 주요내용 :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식품의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연구과제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산업계, 학계, 관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4) 제5회 식량안보포럼

- 주제 :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 및 식품산업 대응전략 설정에 대한 토론회
- 일정 : 10월 중순 프레스센터 혹은 상공회의소 세미나 실
- 주요내용 : 통일을 대비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산업계, 학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함

#### 5)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국제 워크샵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공동주최
- 일정 : 2011년 5월 16~19일, 서울 프라자 호텔
- 주요내용 : 식품조사기술이 식품안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역할과 조사기술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토의

#### 6) 식품과학기술과 식량안보 국제심포지움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공동 주최
- 2011년 11월 16~1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 주요내용 : 식품산업기술이 수확 후 식량손실방지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역할과 발전동향에 관한 토의

## V. 저술 및 출판 지원 사업

- 단행본 출판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왜 해야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 식품폐기물 「그 실체와 개선책」
- 홍보 영상물 제작
  - 국민운동 홍보영상물
  - 기타 강연 CD제작
- 식량안보 관련 자료번역 및 출판

## VI. 기 타

### 1) APEC 회원국 위해평가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평가부와 공동으로 국내외 식품안전위해평가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개발

### 2) INFOSAN 아태지역 회의 개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과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식품안전관리당국자네트워크(INFOSAN,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y Network)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협력체계를 강화 하기위한 모임에 참여

## 한국경제

2011년 3월 1일 화요일 A 27

### 시론 '식품가격' 누른다고 될 일인가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세계 전 지역에서 식품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월별 세계 식품가격지수(Food Price Index) 변화에 따르면 지난 7개월간 세계 식품가격지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2002~2004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2.3배에 달하는 231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한 달간 상승률이 3.4%에 달해 식품가격지수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FAO 곡물경제 전문가 압둘레자 에바시안은 전 세계적인 식품가격 오름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식품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세계적인 파고에 대비하고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교육지책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무너지는 뚝을 삼으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식품의 가격정책을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좀 더 근원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식량안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국내 곡물 수요의 70% 이상, 전체 식량의 반 이상을 외국에 의존해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식량을 아끼고 절약하는 습성이 몸에 배야 한다.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국민이 되려면 음식 값을 마냥 싸게만 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식품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식품 안전의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식품이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중국상인들이 하는 말이 있다. 시장에서 가장 값싼 물건을 골라 사가면서 어찌 품질을 논하느냐는 것이다.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먹으려면 제값을 주고 먹어야 한다.

#### 유통구조·역관세 제도 개선 시급 안전기준 사회적 합의 유도하길

우리나라의 식품 값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쌀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첫째,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므로 국제 가격의 상승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또한 이들 원료를 세계시장에서 획득하는 유통구조가 후진적이어서 비교적 비싸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둘째,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이 대단히 높아 무결점 완전식품을 요구하므로 생산비가 점

점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식품 공장 직원들은 반도체 공장처럼 우주복을 입고 일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수역원짜리 X선 이물질 검사기,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몫이다.

식품가격을 낮추려면 먼저 이런 가격 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식량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외유통구조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입식품 완제품에 8%의 일률관세를 붙이면서 식품원료에는 30~40% 관세를 적용하는 역관세 제도도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

식품의 생산 유통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관리규정들이 결국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살펴봐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로 인해 블랙 컨슈머를 양산케 하는 이물질 신고제를 비롯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표시제 등은 면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요구수준과 비례해 지불해야 할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에만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추라고 주문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의 현실을 벗어난 무리한 식품 가격 억제정책은 자칫 산업의 부실화와 식품안전, 나아가 국민건강의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려대 명예교수

### 특별기고

# 식량위기시대, 국민교육으로 대비하자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세계의 식량사정이 심상치 않다. 기후온난화로 세계 각처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가뭄, 홍수, 지진, 해일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엄청난 인명피해 때문에 그로인한 막대한 식량생산구조의 파괴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한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부족 인구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년 사이에 영양실조 인구가 1억 명 증가해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역자유화가 시작된 WTO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보호막이 있어 최소한의 식량안보가 유지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열려 있어 타 지역의 식량부족 사태가 곧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에 경험한 세계 곡물 파동은 호주의 극심한 가뭄과 미국의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곡물 재고량이 감소

하자 여기에 투기자본이 개입하면서 밀, 옥수수, 쌀, 콩 등 주요 곡물 국제가격을 2~3배로 뛰게 만들었다. 그 결과 30여 개국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권이 바뀌기도 했다. 세계 금융대란으로 잠시 곡물가격이 하락했으나 작년부터 러시아의 밀 흉작, 중국 일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홍수, 계속되는 지진과 해일 등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다시 2008년도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의 식량부족 사태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

## 10억 명 굶주리는 현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식량자급국민운동 나서

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지금처럼 진행되면 반세기 후에는 세계 인구는 2배로 증가하는데 지구 전체의 식량생산은 지금보다 1% 정도 감소하게 되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며 2020년에는 세계 전체식량의 5%를 바이오연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

장을 지속해 우리처럼 육류와 우유를 먹기 시작하면 이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 곡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세계시장에 나오는 곡물을 싹쓸이하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에는 돈이 있어도 사올 식량이 없는 사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식량 전망이 나오자 각 나라들은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식량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들이 주창해온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농업을 포기하고 수출산업을 일으켜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사들여 오늘의 풍요를

이루었다. 곡물자급률은 30% 이하로 떨어졌고 전체 식량자급률도 50%를 밑돌고 있다. OECD는 최근 앞으로 세계 식량위기가 오면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상황이 이러하데 우리의 자세는 너무 안이하고 태평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온 국민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 낭비하고 아까운 줄

모르고 음식을 버리던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에 공급되는 식량의 30%가 음식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한다. 음식쓰레기를 지금의 반으로 줄인다면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45%에서 60%로 높일 수 있다.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나쁜 습관은 밤늦도록 기름진 음식으로 폭식하고 아침밥을 거르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 30%가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온 국민이 아침밥을 먹으면 남아도는 쌀 문제가 해결되고 밀과 옥수수의 수입량이 줄어들어 식량자급률을 최소 3% 높일 수 있다. 도시지역의 집 근처 텃밭과 옥상에 채소를 키워 먹으면 식량이 귀한 것도 알게 되고 식량자급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식량자급을 달성하는 것은 농민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www.foodsecurity.or.kr)이 3월 30일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시작한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일깨우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스스로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어린이아이들까지 자기 몫의 일을 실천함으로써 식량자급을 실현하고 잃어버린 식량 주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이 일에 우리 교육계가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36-713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녹지)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mailto:foodsecurity@foodsecurity.or.kr)  
[www.foodsecurity.or.kr](http://www.foodsecurity.or.kr)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차년도 연보

「 2010년 4월 - 2011년 3월 」



대한민국 식량 공급 식품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Global

Special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36-713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녹지)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www.foodsecurity.or.kr

